

요약

과거에는 인수어테크 기업들이 MGA로 먼저 시장에 진입한 뒤,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사이버보험 특화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로를 밟았음. 최근에는 특화보험회사가 대형 보험그룹과 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결합 형태는 알리안츠의 상업용 사이버보험 사업을 이관받기로 한 코얼리션의 사업 이관형과, 뮌헨 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앳베이의 자본 편입형으로 구분됨

- 사이버 리스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험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2026년 7월 프런티어 AI,¹⁾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인수 익스포저(Underwriting exposure) 확대를 이유로 디지털화 및 사이버 리스크 수준을 '높음'으로 상향함²⁾
 - 2026년 유럽은 글로벌 사이버보험 보험료의 21%인 34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위스 리는 그 배경으로 글로벌 보험회사와 함께 사이버 특화 보험인수관리대리점(Managing General Agency; MGA)이 미개척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고 있음³⁾
- 과거 사이버보험은 리스크 자본 확보 자체가 어려운 분야였고 보험회사 설립에도 인가·자본·신용등급 요건이 따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는 기존 보험회사의 인가와 인수 능력을 빌려 쓰는 MGA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함
 - 사이버 리스크는 손해 데이터가 부족하고 리스크의 성격이 계속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수 계약에서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누적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됨⁴⁾
 - 신생 보험회사는 자금여력에 대한 신뢰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MGA는 보험업 인가와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대규모 자본 없이 기술력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 현재 사이버보험 특화보험회사인 앳베이(At-Bay)는 과거에 MGA로서 뮌헨 리(Munich Re) 산하 전문보험회사인 HSB(Hartford Steam Boiler Inspection and Insurance Company)와 협업하였음⁵⁾
 - 위험 인수심사, 보안 진단, 요율 산정은 앳베이가 자체 기술로 수행하되, 계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는 뮌헨 리와 HSB가 전부 부담하며, 인수 포트폴리오의 연간 손해율에 연동해 언더라이팅 이익을 등급 별로 세분화하여 공유하는 성과 연동형 구조를 채택함

1) 현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과 범용적 능력을 갖춘 최첨단 인공지능임

2) EIOPA(2026. 7. 30.), "EIOPA Insurance Risk Dashboard Shows Broadly Stable Risk Environment even as Cyber and Geopolitical Risk Intensify"

3) Swiss Re(2026. 8. 31.), "Building a Sustainable Cyber Market in the AI Era"

4) The Geneva Association(2016. 11.), "Ten Key Questions on Cyber Risk and Cyber Risk Insurance"

5) Di Maggio, M. and Lane, D.(2020), "At-Bay Cyber Insurance", Harvard Business School, No. 9-220-005

○ 이후 인수어테크 기업들은 MGA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사이버보험 특화보험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자사 명의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인수위험을 직접 보유하는 단계로 이행함

- 앳베이는 인가를 보유한 보험회사를 인수해 인가를 확보한 뒤, 최근 자본 파트너인 뮌헨 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함
 - 2023년 1월 앳베이는 미국 44개 주 인가를 보유한 델라웨어 소재 초과·잉여보험(Excess & Surplus lines) 전업 손해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풀스택 보험회사(Full-stack insurer)로 전환하였고, 2023년 4월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등급 A-(우수)를 부여받음⁶⁾
- 코얼리션(Coalition)은 2022년 8월 뮌헨 리 계열사로부터 미국 50개 주 인가를 보유한 손해보험회사를 인수해 Coalition Insurance Company로 재편함⁷⁾

○ 최근에는 특화보험회사가 대형 보험그룹과 결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특화보험회사의 독립성 유지 여부에 따라 사업 이관형과 자본 편입형으로 구분됨

- 자본 편입형은 대형 보험그룹이 특화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인수 능력을 공급하던 계약 관계가 소유 관계로 전환됨⁸⁾
 - 뮌헨 리는 2022년부터 HSB를 통해 앳베이의 주간사 재보험사이자 최대 자본 공급자 역할을 해 왔고, 2026년 8월 19일 기업가치 5억 7,500만 달러에 앳베이를 인수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가 종결되면 인수 심사를 수행하는 앳베이와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재보험자 및 자본 제공자가 같은 그룹으로 통합됨
- 사업 이관형은 대형 보험그룹이 자사의 상업용 사이버보험 포트폴리오를 특화보험회사로 이관하고 인수 능력과 유통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화보험회사는 독립성을 유지한 채 사업 규모를 확대함⁹⁾
 - 알리안츠 커머셜(Allianz Commercial)은 2026년 5월 단독 상업용 사이버보험 포트폴리오를 코얼리션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얼리션이 해당 포트폴리오의 요율 산정,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및 보험금 지급 전 과정을 담당함
 - 알리안츠는 이 계약의 대가로 코얼리션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였으며, 다국적·대기업 계약에 대한 인수·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인수 능력과 유통망을 제공함
 - 인수 능력을 확보한 코얼리션은 2026년 7월 15일 미국에서 담보 한도 최대 2,500만 달러의 대기업 전용 상품인 기업용 액티브 사이버보험(Active Cyber Insurance for Enterprises)을 출시하며 대기업 시장에 진입함¹⁰⁾

○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 인수 역량이 기술 플랫폼과 대형 자본의 결합을 통해 재편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봄¹¹⁾

6) At-Bay(2023. 4. 19.), "AM Best Assigns Financial Strength Rating of A- (Excellent) to At-Bay Carrier", Press Release

7) Coalition(2022. 8. 15.), "Coalition Completes Acquisition of Insurance Carrier With Licenses In All 50 States", Press Release

8) Munich Re(2026. 8. 19.), "Munich Re Group to Acquire Cyber Insurtech At-Bay"

9) Coalition(2026. 5. 6.), "Coalition and Allianz Commercial Expand Strategic Global Cyber Insurance Partnership", Press Release

10) Coalition(2026. 7. 15.), "Coalition Unveils Active Cyber Insurance for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Press Release

11) Munich Re(2026. 8. 19.), "Munich Re Group to Acquire Cyber Insurtech At-Bay"